

제 243호 · 2014년 2월 12일
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

KMI

국제물류위클리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| CONTENTS |

물류정책·사업동향

1. 아일랜드의 Cork 항만 주식회사 재개발계획 발표
2. DHL 글로벌포워딩, 중국-유럽 간 유일의 온도조절 철송서비스 개시
3. Maersk 선박의 냉동컨테이너용 전원공급장치 점차 감소
4. 창지투(창춘-지린-투먼) 지역 동북아 물류 통로 확대

물류시장동향

1. ICTSI, DR콩고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진출
2. DHL, 아프리카 역내 네트워크 확보위해 투자확대 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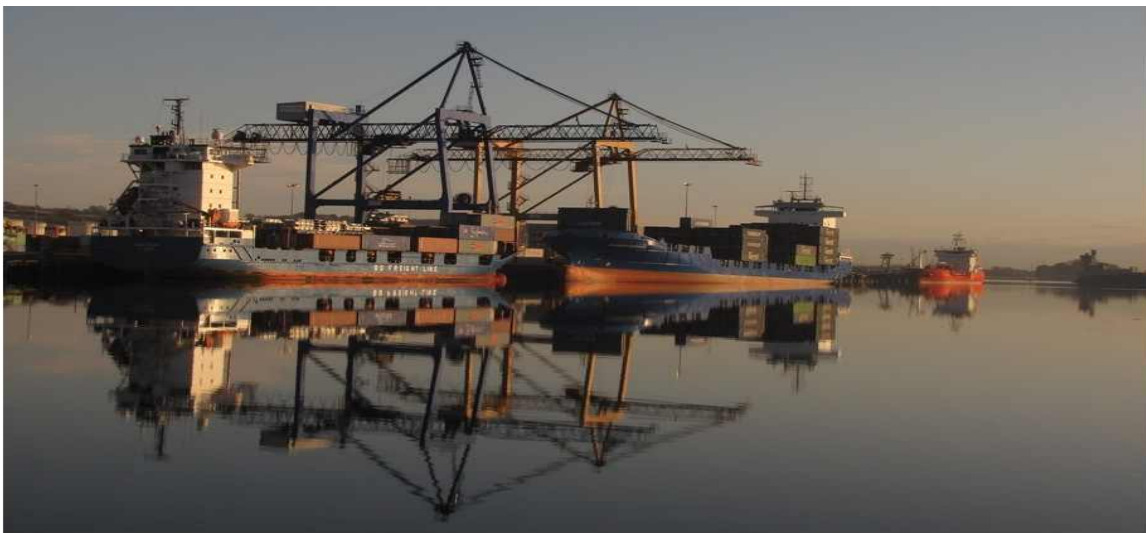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□ 아일랜드의 Cork 항만 주식회사 재개발계획 발표

- 아일랜드 소재 Cork 항만 주식회사는 선박정박과 육상측 처리능력 제약을 극복하고 대형선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링가스키디(Ringaskiddy)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제안
 - 제안된 개발계획은 링가스키디 지역에 있는 Cork항의 현재 시설을 확장하는 안
 - 이 계획에는 다양한 화물선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부두,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심수항의 180m 확장, 새로운 공용 조선대¹⁾ 건설과 컨테이너 흐름 개선을 위한 안벽 200m개발을 포함
 - Cork항의 데니스 힐리(Denis Healy) 엔지니어링 서비스 매니저는 “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 항만의 중요한 변화가 아니라, Cork항이 유럽의 TEN-T²⁾ 핵심 네트워크 항만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며, 미래의 연결성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의 확대 개발을 지원하는 것” 이라고 밝힘
 - TEN-T 기금은 링가스키디지역 항만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
 - 부가적으로 Cork항은 피크시 링가스키디지역에서 반출입되는 규격화된 화물의 흐름을 통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요구관리시스템(Demand Management System) 구축 모색

< 아일랜드의 Cork항 전경 >



자료 : www.portstrategy.com

자료 : www.portstrategy.com, 2014.02.07.

김우선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89, firstkim@kmi.re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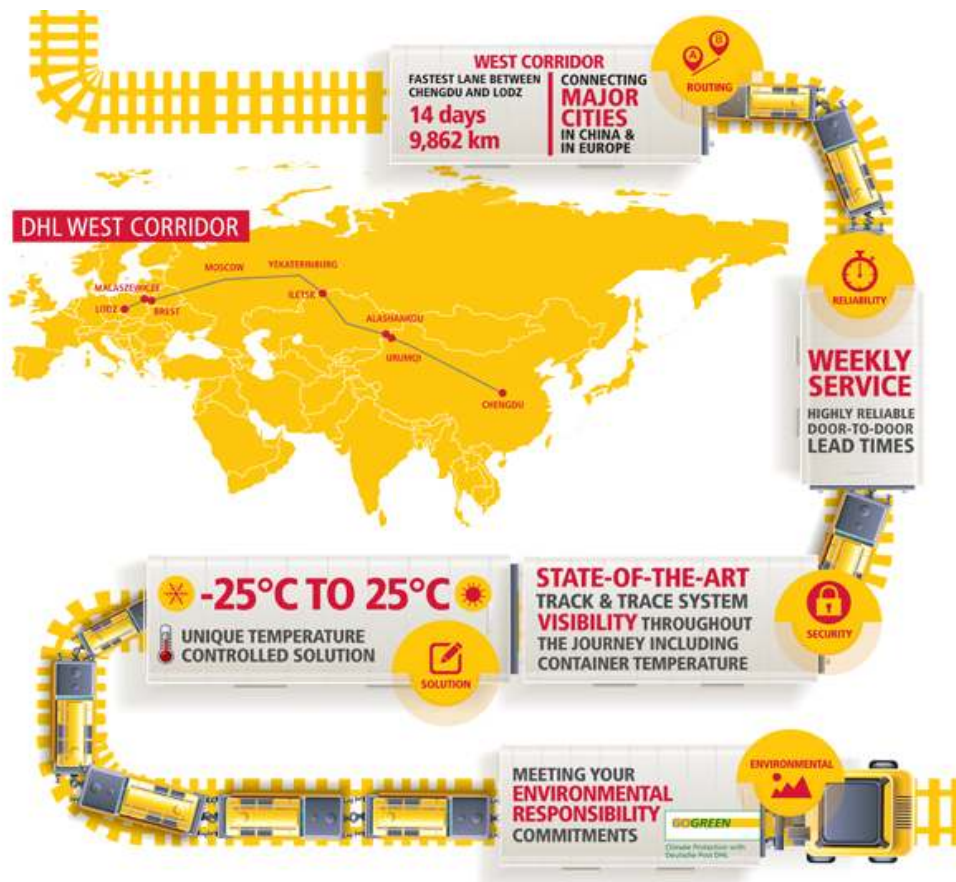
1) 선박 이동을 위한 경사진 통로

2) 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

□ DHL 글로벌포워딩, 중국-유럽 간 유일의 온도조절 철송서비스 개시

- DHL 글로벌포워딩(DHL Global Forwarding)은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중국-유럽 간 유일의 온도조절 철송서비스를 개시
 - 중국과 유럽 간 가장 빠른 철도연결 서비스로 알려진 중국-유럽 간 철송서비스는 2013년 개통되었으며, 중국 청두(Chengdu)에서 시작되어 중국 서부회랑을 따라 DHL의 복합운송 허브인 폴란드의 Małaszewicze와 Lodz까지 연결
 - 이전까지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품들은 아주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에 빠르고 경제적인 중국 서부회랑 대륙횡단 철도 이용 불가
 - 그러나 이제는 DHL의 온도조절 철송서비스를 통해 해당 제품들을 연중 내내 복합운송 가능

< DHL의 중국-유럽 철송서비스 >



자료 : www.dpdhl.com

- 이 철송서비스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디젤-전기 엔진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, 원격으로 지속적인 위치추적 및 온도조정 가능

- 외부온도는 연중 섭씨 영하 17도에서 영상 26도 사이를 오가지만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고객은 제품별로 컨테이너 내부 최적온도를 섭씨 영하 25에서 영상 25도 사이에서 어느때나 선택 가능
 - 컨테이너는 알루미늄과 고강도 철재 소재의 경량 컨테이너로, 온도조절 및 유지를 위한 에너지는 디젤-전기 엔진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급
 - 모든 컨테이너는 최첨단 위치추적 및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화주는 운송 중 화물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확인하고 조절 가능
- 이번 서비스의 개시로 고객들은 매우 더운 여름부터 가장 추운 겨울까지 언제라도 경제적인 운송 루트를 이용 가능하며, DHL은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수송 유연성을 크게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 수준 배가

자료 : www.dpdhl.com, 2014.1.22.

김은우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hisgrace@kmi.re.kr)

□ Maersk 선박의 냉동컨테이너용 전원공급장치 점차 감소

- 상위 10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 선박의 전원공급장치 증가
 - 독일의 해운 컨설팅 기관인 Dynamar의 '2013 Reefer Analysis' 보고서에 따르면 Maersk와 타 선사들 간 부폐성 화물의 운송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
 - Maersk를 제외한 다른 선사들이 냉동컨테이너용 전원공급장치(Reefer plug)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, Maersk 선박의 전원공급장치는 줄어들어, 2013년 7월 기준 전년대비 1%가 감소한 311,500개로 집계
 - 이로 인해 많은 항로에서 냉동컨테이너 운송시장 점유율이 감소했는데, 공급장치 감소는 Maersk의 운임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Maersk가 다양한 항로에서 FEU당 1,500달러를 고수한 반면 경쟁사들은 일부 노선에만 운임인상을 적용했기 때문
 - 반면 경쟁사인 MSC는 2013년 7월까지 일 년 동안 사선 및 용선의 전원공급장치수를 209,800개까지 8% 늘렸고, CMA CGM은 165,100개로 15% 확대
 - MSC와 CMA CGM은 지속적으로 전원공급장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, MSC는 새로운 선박의 건조를 통해 15,100개의 플러그를 추가할 계획이고, CMA CGM 역시 신조를 통해 적어도 14,600개의 전원공급장치를 추가할 예정
 - 냉동화물의 운송을 확대하고 있는 대만 Evergreen과 독일 Hapag-Lloyd도 전원공급장치를 각각 26%, 12% 추가할 계획
- Maersk, 전원공급장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윤 달성
 - 코펜하겐(Copenhagen)에 위치한 Maersk의 글로벌 냉동관리부문 부서장인 Thomas Eskesen에 따르면 일부 선사들이 운임이 증가하지 않는 항로를 의도적으로 포기했지만, 선사들은 전반적으로 적은 냉동화물을 처리했음에도 매출은 증가하였고 높은 이윤을 달성
 - 현재 Maersk는 신조를 통해 경쟁사보다 적은 12,300개의 전원공급장치만 추가할 예정이지만, 세계에서 가장 넓은 냉동운송 네트워크와 최대의 냉동화물 선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냉동컨테이너 운송 부문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할 전망
 - 지난해 Maersk의 냉동컨테이너 풀(Pool)은 510,100 TEU에 달하며,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사인 MSC의 259,000 TEU 대비 두 배 수준
 - 냉동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Maersk 선대의 점유율은 전세계 선박의 23%이며, MSC와 CMA CGM은 각각 11.8%, 6%를 차지

자료 : www.fairplay.co.uk, 2014.2.6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hongwon@kmi.re.kr)

□ 창지투(창춘-지린-투먼) 지역 동북아 물류 통로 확대

- 지린성은 국가기초자재와 기초공업기지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1,2차 산업이 크게 발달
 - 매년 300억 근(斤) 곡물을 해외로 수출하며 목축업 발달로 가축의 1/3 이상을 기타 지역으로 판매
 - 연간 자체 석유생산량은 1,000만 톤에 달하며 절반가량을 수출, 석탄은 4,000만 톤을 수입
- 1,2차 산업 및 경제성장에 비해 3차 산업 발전이 미흡하여 지린성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
 - 현재 하루 평균 약 1만대의 화물차량이 대동맥인 징하(京哈)³⁾와 하대(哈大)⁴⁾ 고속도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운송
 - 육상운송을 통해 다롄항까지, 다롄항에서 해상운송을 통해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방식은 거리가 멀어 고비용 소요

<창지투 경제권 위치도>



자료 : www.baidu.com.

3) 징하고속도로 : 베이징에서 허베이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베이징, 탕산, 친황다오, 친저우, 선양, 창춘, 하얼빈 등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

4) 하대고속도로 : 하얼빈과 지린, 다칭 등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

- 12·5규획에 따라 창지투 지역에 국제 물류통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린의 물류체계 변화 추진
 - 2013년 재개통된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, 속초를 연결하는 동해 항로 활성화와 9년간 운행이 중지된 훈춘과 러시아간 마하린노철도를 통해 석탄 운송 재개
 -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물류통로 건설에 24억 위안을 투자하여 헤이룽장성, 창춘, 지린, 투먼, 북한 나진항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나진항을 이용한 해상운송을 추진하여 운송 비용 및 거리 단축 추진
- 창지투지역은 중국, 러시아, 북한 3국의 접경 요충지로 향후 한, 중, 일 3국의 경제 교류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
 - 중국정부는 훈춘시에 환동해 경제권의 새로운 물류기지 및 관광, 경제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코, 현대자동차, 롯데 등 한국 기업 또한 창지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체결 추진
 - 향후 북한과 중국, 한국, 일본 등지를 잇는 항로가 활성화되고 국제관광도시가 조성되면 지린성 훈춘은 동북아 거점 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

자료 : finance.sina.com.cn, 2014.1.30.

박여진 연구원 (☎ 02-2105-2967, yjp06@kmi.re.kr)

이주호 부연구위원 (☎ 02-2105-2890, jooho@kmi.re.kr)

물류시장동향

□ ICTSI, DR콩고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 진출

- ICTSI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DR콩고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사업을 진행
 - 콩고강 유역의 마타디 지역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터미널은 총 선선길이 106m에 연간 12만 TEU 처리능력을 갖출 예정
- ICTSI는 DR 콩고의 인구성장률과 GDP 성장률⁵⁾을 고려하여 소비재 상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물동량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
 - 그러나 DR 콩고의 빈곤층 문제와 소비력 약세, 낙후된 인프라 등이 사업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
 - 그러나 ICTSI는 사업 수익의 다각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프리카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, 위험요소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예정

자료 : www.businessmonitor.com, 2014.2.5.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i@kmi.re.kr)

□ DHL, 아프리카 역내 네트워크 확보위해 투자확대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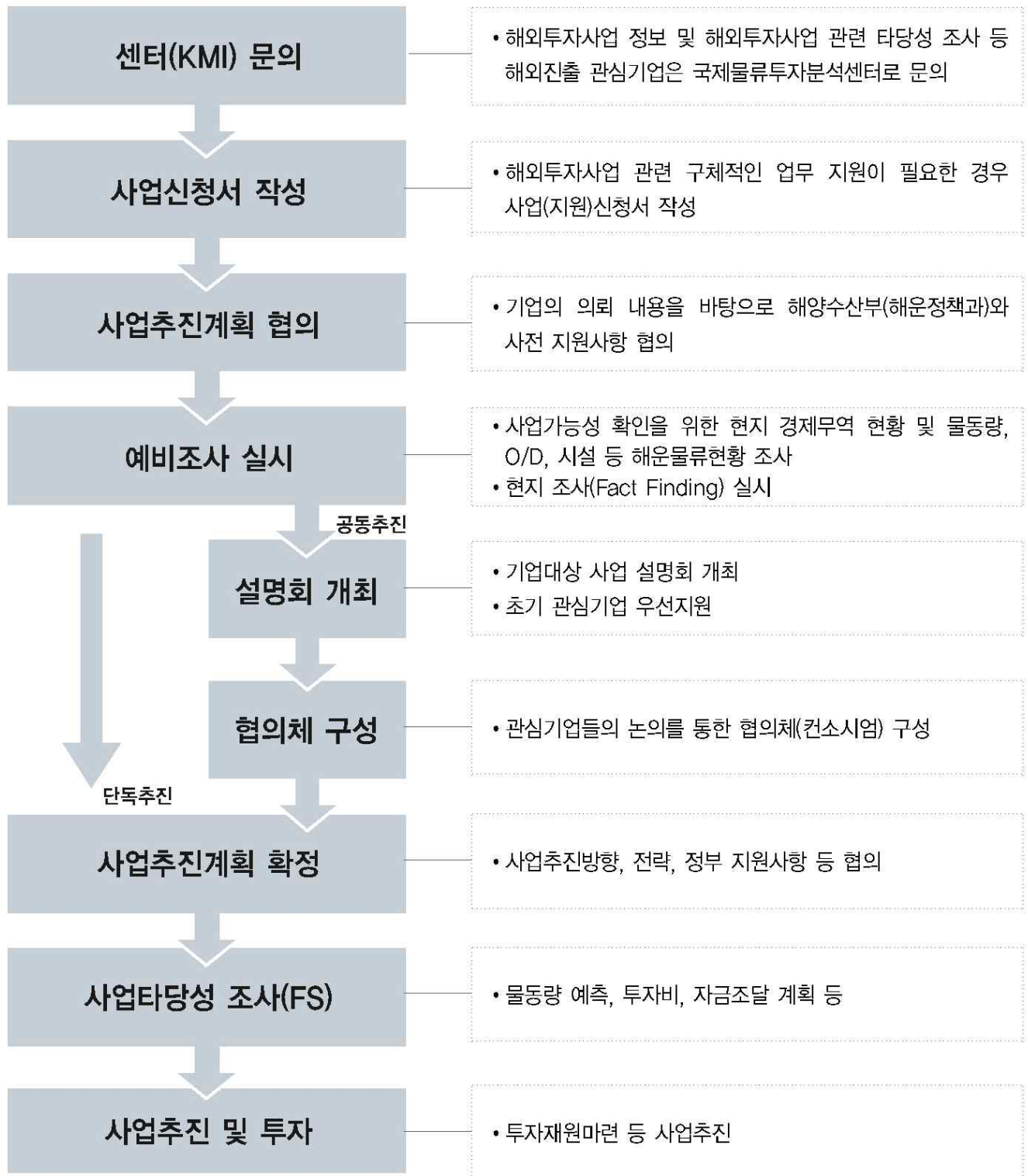
- DHL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중소기업 및 국경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확대 예정
 - DHL은 요하네스버그, 케이프타운과 더반에 집배송장(Depot)을 가지고 있는데, 중소기업들과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향후 몇 달 사이에 지역내 집배송장을 300곳에서 2,00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
 - 아프리카는 지역내 물류 인프라의 부족으로 역내 교역이 정체되고 원자재위주 수출 및 유럽을 통한 공산품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
 - 현재 아프리카 지역내 물류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낮은 상태로, 역외 시장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내 물류 인프라 부족은 당면한 문제 중 하나
 - DHL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에 위치한 기업들이 중국 및 인도시장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계획
 -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5~6기의 화물항공 증편 및 물류 시설을 확장했으며 역내 국가간 도로 연결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특송 서비스를 위해 항공편수를 더욱 증가할 예정

자료 : www.iol.co.za, 2014.2.11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hongwon@kmi.re.kr)

5) DR콩고 인구는 2023년까지 87,700만까지 증가할 예정이고 2014년까지 GDP 성장률이 7.4% 성장할 것으로 예측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